

※ 2020. 5. 28(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환영사

2020. 5. 28. 10:00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2020년 제2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과 경제의 비상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참여해 주신
윌리엄 러셀(William Russell) 로드메이어님,
빌 윈터스(Bill Winters) SC 그룹 대표님,
피에르 페링(Pierre Ferring)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세션을 통해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비전을 공유해 주신
World Bank, MAS, VISA 관계자 여러분들과,

박람회에 참여하신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금융유관기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핀테크·디지털금융 발전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약 150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온라인 전시관과 함께
디지털 인력 채용박람회와 투자설명회도 구현될 것입니다.

이번 핀테크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결, 융합, 개방 그리고 금융혁신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핀테크 · 디지털금융 혁신전략

코로나19는 국제질서, 경제·사회구조,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의 재편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될 것이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우리의 아이들도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서로 격리되면서도, 네트워크에 기반한 초연결(Hyper-Connected)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해 융합과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빨라지고, 그 결과 새로운 질서와 표준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혁신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핀테크 분야에서도 디지털·빅데이터·비대면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자금의 공급 확대

이를 위해 첫째, 디지털·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과 기업으로 자금공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혁신자금의 공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산업과 핀테크, 혁신 벤처,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추진

둘째, 데이터와 디지털 결제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와 제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EU GDPR 수준으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결합과 유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의 원년이 되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결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지급결제업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지평을 넓힐 것입니다.
핵심 인프라인 오픈뱅킹의 확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혁신을 수용하는 규제체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금융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디지털·데이터 안전 노력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BIS 등이 제기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디지털 디바이드 완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III. 맺음말씀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서
전세계가 핀테크·디지털금융의 혁신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과 성공스토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